

안전에는 반드시 때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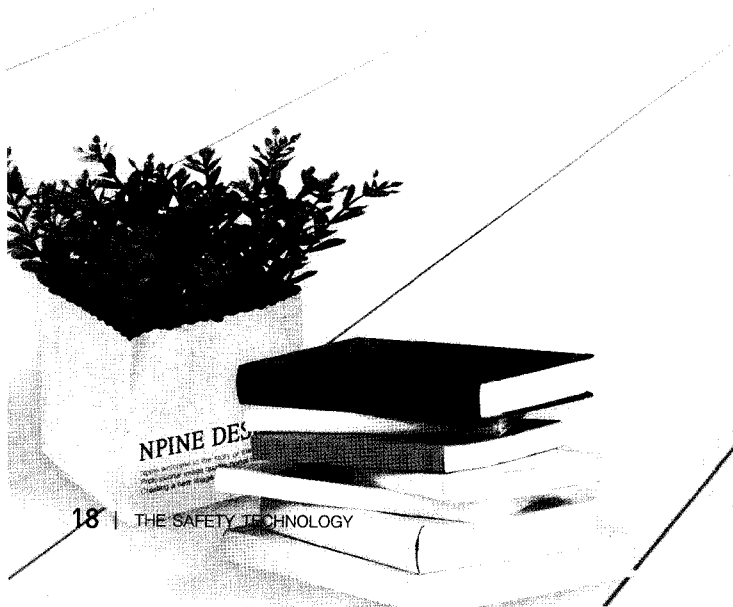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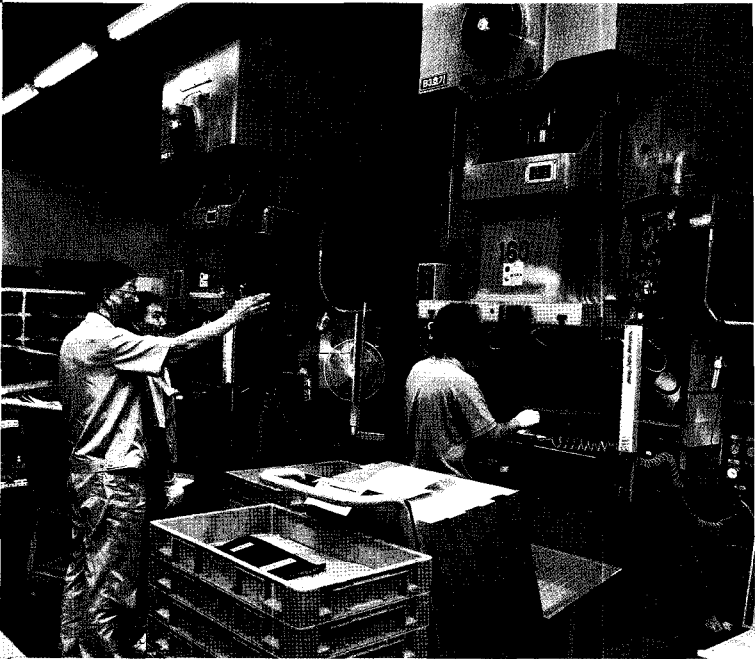
1965년 국내 최초로 인쇄회로기판 전문 업체로 설립된 이래 40년이 넘게 외길을 걸어온 대덕GDS(주). 그동안 기술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해, 현재는 제1공장에서 일반 가전용 기판을 제2공장에서 산업용 기판을 집중 생산하고 있다. 또 최첨단 FPCB 생산라인을 구축해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PCB 전 가종을 생산하는 종합PCB업체로 발전했다.

대덕지GDS(주)가 이처럼 성장할 수 있었던데에는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에 힘을 쏟은 것도 있지만, 근간에는 남다른 안전관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결같이 안전을 실천하고 있는 연재모 안전관리자를 찾아가 봤다.

대덕GDS(주) 연재모 안전관리자

취재 · 사진 | 김성대 기자(glsu002@safety.or.kr)



안전의 습관화 필요

연 안전관리자는 군대에서 위생병으로 근무했다. 크고 작은 사고를 당한 병사들을 보면서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부터 안전을 생각하게 됐다.

“사고 발생 원인을 살펴보니 안전불감증이 직·간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또 안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 때부터 안전이 무엇인지 알게 됐고,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취득을 본격적으로 준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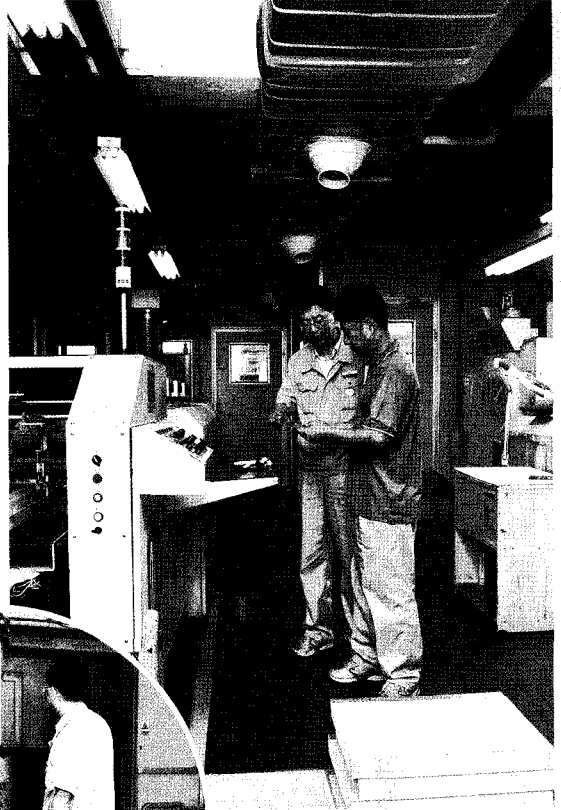
제대 후 그는 대덕지디에스(주) 기술부에 입사했다. 입사 직후 기술업무를 비롯해 안전·보건·소방업무까지 겸직을 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들 업무를 함께 보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연 안전관리자는 큰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다. 군대에서 의 경험도 있었지만 안전에 대한 뚜렷한 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그는 우선 근로자들의 불안정한 행동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안전관리 활동을 실시했다. 기본적인 보호구나 안전장치 착용여부를 수시로 확인해 근로자의 안전을 챙긴 것. 그리고 현재는 제조팀에서 제조공정관리와 안전관리 업무분야 파트장으로 근무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안전이 습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안전은 노력과 관심의 결과물

이곳 현장에는 물류운반을 위한 엘리베이터, 생산공정의 염산 등 화학물질, 프레스 등 다수의 위험기계기구를 보유하고 있다. 또 대덕GDS(주) 사업부내에는 본사 직원 150명 외에도 10개 업체 200명의 협력사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의 평균 나이가 42세에 이르고, 더욱이 파견 등 비정규직 사원이 많다보니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즉, 안전사고 위험요소가 산재해 있고 사고 위험성도 높은 것이다.

그래서 연 안전관리자는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활성화되도록 안전활동에 근로자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했다. 근로자들이 주축이 돼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토록 했으며, 이를 통해 안전교육, 작업환경 개선, 안전정보 등을 지원·관리하고 있다.



때를 놓치면 사고로 직결

연 안전관리자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특히 안전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더욱 ‘때’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때를 놓치면 바로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사고는 어느 순간 특하고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사전에 징후가 나타납니다. 그런 불안정한 것들을 발견하고 제거하는 것이 제 본분이고 역할입니다”

20여년 동안 안전관리 활동을 해온 그는 조금이라도 더 불안정한 것들을 발견하고 제대로 시정하기 위해 지금도 끊임없이 안전에 대한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현장의 안전 뿐 아니고 타인의 귀중한 생명과 많은 가족의 행복을 책임지고 있다. 개인자과 근검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는 그. 그의 이런 안전마인드가 모든 산업현장에 뿌리내리길 기원해 본다. ☺

